

제17회 전주프로젝트 선정작 발표

전주시네마프로젝트: 넥스트에디션 피칭 대상작 10편 · 워크인프로그레스 5편 선정

제17회 전주프로젝트 '전주시네마프로젝트: 넥스트에디션' 피칭 대상작 10편과 '워크인프로그레스' 선정작 5편이 공개됐다. 전주시네마프로젝트(이하 JCP)는 저예산 장편영화의 제작 활성화를 목표로 국내외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장편 독립영화를 발굴해 전주국제영화제가 제작·투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에 따르면 올해 넥스트에디션 공모에는 국내 50편, 해외 38편 등 총 97편이 접수됐다. 지난해 58편보다 39편이 증가한 수치다. 97편의 작품 중 독창성, 작품성, 제작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국내외의 경우, 이숙경 감독의 <그 여자들의 집>, 김현민 감독의 <낮은 곳으로부터>, 조희수 감독의 <마른역사>, 김용천 감독의 <물고기 춤>, 장우진 감독의 <우주의 흔적> 등 총 5개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해외 프로젝트로는 주성저 감독의 A Distant House Smokes on the

Horizon, 발레리 마사디안 감독의 Anoush and the Drifters, 데보라 스트라트맨 감독의 Hello Ladies, 실뱅 조지 감독의 SEALAND, 휴 김슨 감독의 The Coal Mine 까지 5개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선정된 10개 프로젝트는 5월 4~ 6일 3일간 개최되는 제17회 전주프로젝트 기간 중 프로젝트 피칭을 통해 JCP 최종 선정작을 두고 경쟁한다. JCP 선정작은 국내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1억 원,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으며, 다음 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 또는 아시아 프리미어로 관객과 만난다. 또한 피칭 대상작들은 제17회 전주프로젝트 기간 중 국내외 영화산업 관계자들과 비즈니스 미팅 기회를 얻는다. 올해는 특히 국내 피칭 대상작의 경우, 앞서 발표된 전주랩 선정작 10편과 함께 B&B엔터테인먼트,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 골드메달리스트, SM엔터테인먼트로 구성된 전주프로젝트 캐스팅위원회

회(가칭)의 심사를 거쳐 총 4천만 원의 상금과 캐스팅 지원 옵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워크인프로그레스에는 25편이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해 18편에서 7편이나 증가한 수치다. 이중 독창성, 작품성, 배급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심사를 거쳐 정하린 감독의 <라닝타임은 77분>, 임대정 감독의 <아웅아미 (구 : 레드다이아리)>, 김태경 감독의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향할 수 있을까?>, 유형준 감독의 <정육점집 외아들>, 권순현 감독의 <콘크리트의 나이트> 등 총 5편이 선정됐다. 선정작들은 제17회 전주프로젝트 기간 중 국내외 영화산업 및 영화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시사와 심사를 거치며, 선정된 우수작 1편은 500만 원의 배급지원금을 받는다. 한편 JCP 최종 선정작과 워크인프로그레스 우수작은 5월 6일에 있을 제17회 전주프로젝트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장은성 기자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카고' 익산 온다

21~23일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서 공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뮤지컬 '시카고'가 익산에 온다. 익산예술의전당은 2000년 한국 초연 이후 누적 공연 1,500회, 누적 관객 154만 명이라는 기록을 가진 뮤지컬 '시카고'를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대공연장 무대에 올린다고 13일 밝혔다. '시카고'는 28명의 배우와 15인조 라이브 박밴드, 17년간 손발을 맞춘 스태프가 함께 한다. 특히 역대 최고의 캐스팅인 최정원, 윤공주, 아이비, 박건형, 김영주, 김경선, 차정현, S.J. KIM 등 쟁쟁한 배우들이 무대에 오른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진행된 오디션을 통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함께하게 된 17명의 앙상블 배우가 합류해 한층 더 뜨겁고 깊어진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카고'는 1975년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신화적 존재였던 '발 파시'와 '존 칸더',



'프레드 엡'에 의해 뮤지컬로 제작된 이후 1996년 연출가 '윌터 바비'와 안무가 '앤 레인킹'에 의해 각색된 작품이다. 공연은 14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인터파크티켓, 티켓링크, 예스24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다. 티켓은 VIP석 16만 원, R석 14만 원, S석 11만 원, A석 8만 원으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과 전화(063-859-3254)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세종대왕기념사업회 '맞손'

한글 문화교류 증진 · 한글서에 전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협력키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13일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의실에서 송하진 위원장과 최홍식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글과 한글서에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세종대왕의 업적과 한글의 문화교류 증진, 한글서예의 전시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위원장은 "한글은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 창조적 유산"이라며 "우리의 언어와 함께 한글서예라는 예술적 형태로 표현하는 아름다움은 다른 언어 문화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를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최홍식 회장은 "한글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13일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의실에서 송하진 위원장과 최홍식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글과 한글서에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한글서예는 그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예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글과 한글서

예를 국내외에 널리 보급하고, 한글 서예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기반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는 데 있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춘향제 홍보 콘텐츠 ·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남원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남원시 광한루원 및 요천변 일대에서 개최되는 제95회 춘향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홍보 콘텐츠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 공모전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입상자에게는 총 1000만원 상당의 상금과 남원시장상, 남원춘향제제위원회장이 수여된다. 공모전은 영상, 웹툰, 자유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뉘며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중복 수상은 제한된다. 영상과 웹툰 부문은 춘향제를 홍보하기 위한 완성된 디자인이나 영상,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직접 기획 제작해 제출해야 하며 자유부문은 제안, 아이디어, 캐릭터 개발 등 자유형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최대 3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QR 코드를 통한 신청 접수 및 공모전 응모가 가능하다. 당선작은 이번 춘향제를 통해 홍보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되게 되며, 참여작은 전문심사는 창의성, 기획/완성도, 활용가능성, 주제 적합성 등 4가지 기준으로 진행되며 수상작은 총 33팀이 선정된다. 대상(1팀)은 3개 부문 통합 1팀을 선정해 상금 200만 원과 남원시장상을 수여하고, 최우수상은 3개 부문 각 1팀씩 상금 100만원과 춘향제제위원장상이 수여되며, 수상작 발표는 3월 10일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를 통해 발표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시 · 원광대 한문번역연구소, '용안수록 · 공사수록' 번역서 발간

익산시와 원광대학교 한문번역연구소는 조선 후기 익산 지역에서 근무한 수령들이 작성한 문헌자료 '용안수록 · 공사수록' 번역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용안수록(龍安隨錄)'은 1862년(조선 철종 13년) 1월부터 1864년(고종 1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용안현감으로 재직했던 김형집(金亨集)의 저술이다. 전라관찰사에게 보낸 세금납부 기한연장 요청문서에서부터 용안현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이르기까지 당시 용안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공사수록(公私隨錄)'은 1829년부터 3년 반

동안 익산군수를 지냈던 이능수(李能秀)가 재임 후반기인 1832년 1월부터 1833년 4월까지의 업무 내용을 기록한 문헌자료다. 19세기 초 익산군과 주변 지역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 당시의 사회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용안수록 · 공사수록' 번역서는 수령들의 기록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 후기의 생생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번역본은 읽기 쉽게 고쳐 쓴 원문이 함께 수록돼 연구를 원하는 전문가나 일반인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 지휘자 · 단원 공개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장애인 오케스트라 출범을 앞두고 단원모집에 나섰다. 1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방시간선택제임

기제공무원(장애인 오케스트라 분야)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계획에 따라 지휘자 1명과 장애인 단원 10명을 공개 모집한다. 지휘자는 1명 채용 예정으로 연령, 성별, 주

소지 제한은 없다. 단원은 현악기 5명, 관악기 3명, 타악기 1명, 건반악기 1명 등 총 1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돼 있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 구분 모집으로 채용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18~20일 3일간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 · 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었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 · 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었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